



해외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배경 및 전망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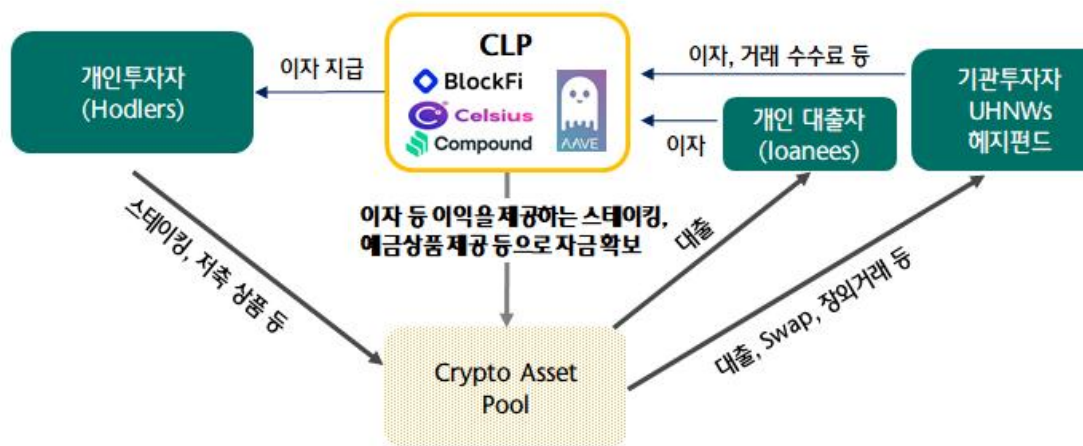
- **코로나 대응에 따른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해 인플레이 압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가상자산 수요가 확대**
 - 코로나 위기 대응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 압박이 확산되면서 이를 완화해줄 헤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급부상
 - 특히 비트코인은 인플레이 헤지 수단으로 매력적일 뿐 아니라 타 전통적 자산군과의 상관관계도 낮아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
 - 실제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편입하는 기업(Tesla, MicroStrategy 등)이 늘어나기 시작
-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한편 은행권에도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정립해 은행들의 사업 진출 발판을 마련**
 - (미국) OCC는 가상자산을 전자적 형태의 자산으로 보고 이를 은행 수탁범위에 허용시킴으로써 은행들이 사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규제 틀을 마련
 - (스위스) FINMA는 가상자산을 취급 형태에 따라 관련법을 적용하는 한편, CISA 라이선스를 통해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독일) BaFin은 'Crypto custody business'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이를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포함시켜 모든 가상자산 수탁업체에 라이선스 등록을 의무화
 - (한국) '21.3월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 **한편 은행권에서는 비이자 부문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가상자산 시장 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은행을 중심으로 커스터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에 이어 기관투자자의 꾸준한 유입으로 성장세가 지속되자 기존 수탁업무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려는 은행들이 증가
 - 실제 각국의 규제 및 시장 환경에 맞춰 커스터디 솔루션 내재화 또는 블록체인 전문업체 투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 이에 글로벌 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신사업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전문기업 및 커스터디 솔루션 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본격화

- 2021년 글로벌 상위 100대 은행 중 절반 이상이 블록체인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투자 또는 자회사를 통한 인수 방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한 은행들은 커스터디 사업으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스테이킹, 가상자산 담보대출, 운용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가능성

-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려는 은행들은 각국의 규제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진출 방식(투자, 제휴 등)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초기 사업은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유력
 - 다만, 커스터디 시장 내 한정된 수요로 인해 사업 성장이 제한적일 것을 고려해 은행들은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가능성
- 스테이킹, 가상자산 담보대출, 트레이딩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BlockFi의 확장형 CLP(crypto lending platform) 모델을 참고

그림 | CLP(crypto lending platform) 비즈니스 모델



연 구 원 김 효 섭 hyosupk@hanafn.com

Key Words : 가상자산, 커스터디

I. 해외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배경

1. 가상자산 수요 확대

- 코로나 대응에 따른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수요가 확대
 -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동시에 감행해 무제한 양적완화를 주도하였고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을 초래
 - '21.9월 미국 M2 통화량은 지난해 1월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36.7% 증가한 21조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양적완화 정책 수준을 넘어 단기간 대규모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2007~2009년 중 미국 M2 증가율은 11%에 불과)
 - 이에 달러의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달러 지위 약화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한편,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 줄 hedge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급부상
 -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주식·채권 등 전통적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아 개인,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일반 기업들의 관심도 확대되는 모습
 - 현재 MicroStrategy(11.4만개), Tesla(4.3만개), Galaxy Digital(1.6만개) 뿐 아니라 국내 게임사 넥슨(1,717개) 등이 이미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
 - '21.11월 글로벌 상장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의 1.1%(23.9만개) 수준이나 취급 중인 기업(36개)이 소수인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기업의 보유 비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그림1 | 미국 M2 Money stock 통화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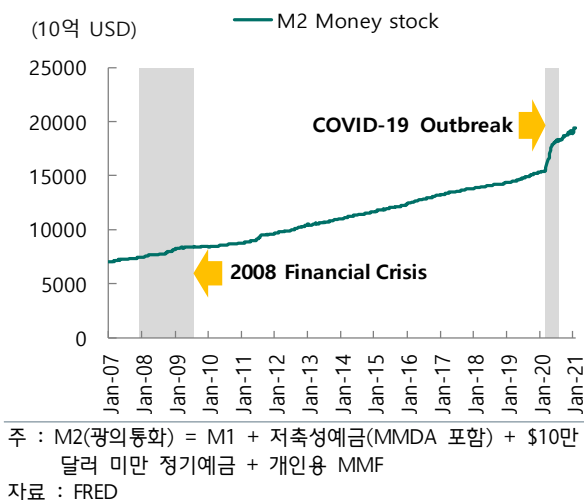


그림2 | 비트코인과 타 자산간 상관분석 매트릭스

	Bitcoin	MSCI World	S&P 500	Nasdaq	Kospi	Gold	Bond	Oil
Bitcoin	1.00	0.28	0.29	0.28	0.25	0.00	0.13	0.14
MSCI World	0.28	1.00	0.86	0.85	0.67	-0.10	0.26	0.23
S&P	0.29	0.86	1.00	0.95	0.77	0.06	0.43	0.20
Nasdaq	0.28	0.85	0.95	1.00	0.74	0.03	0.38	0.15
Kospi	0.25	0.67	0.77	0.74	1.00	0.12	0.39	0.17
Gold	0.00	-0.10	0.06	0.03	0.12	1.00	-0.06	0.34
Bond	0.13	0.26	0.43	0.38	0.39	-0.06	1.00	-0.04
Oil	0.14	0.23	0.20	0.15	0.17	0.34	-0.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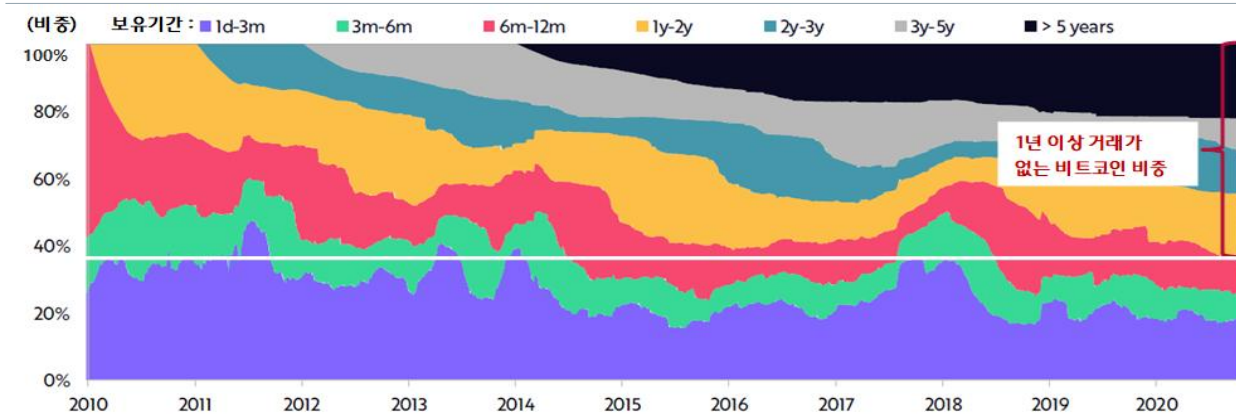
주 : '15.1~'21.1 월단위 rolling 수익률로 상관계수 산출
자료 : 한화자산운용, Xangle

[참고]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

■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은 투기 목적의 단기매매 투자자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HODL1)” 전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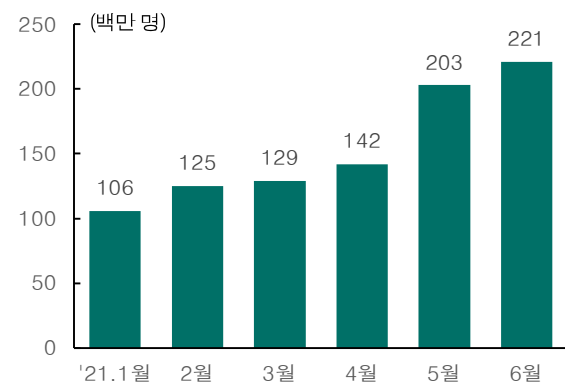
- 전체 유통량 중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트코인 물량이 점차 늘어나 지난해 말 이들 비중이 60%를 상회하면서 장기 보유자가 늘고 있음을 시사
 - 실제 Binance에서 전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투자자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기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49%)
 - 20년 말 가상자산 이용자는 1억 명을 돌파하였고,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 현재는 2.2억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

그림3 | 기간별 비트코인 보유자의 투자성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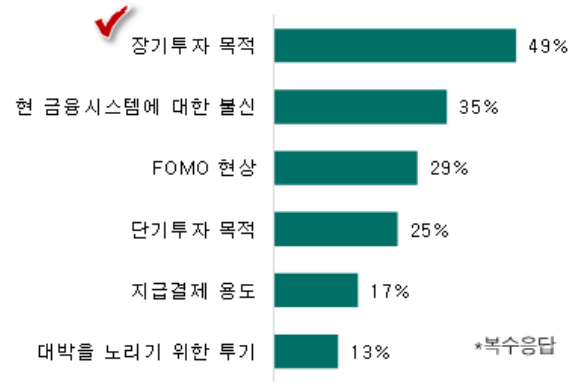
자료 : ARK Invest

그림4 |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자 수



주 : 주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24개 대상으로 집계
자료 : Crypto.com

그림5 | 가상자산 투자자 거래 목적



주 : 지난 20/9/15부터 40일간 178개국의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6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자료 : Binance Research

1) HODL은 'Hold on for dear life'의 줄임말로 시세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을 뜻하는 속어

2. 은행권 내 가상자산 규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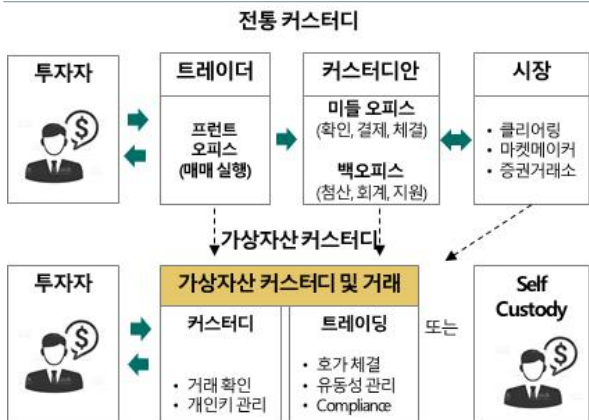
-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한편 은행권에도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사업 진출 발판이 마련
- (미국) 통화감독청은 가상자산을 전자적 형태의 자산으로 보고 이를 은행의 수탁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미국 은행들도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틀을 마련
 - '20.7월 美 통화감독청(OCC)은 연방인가은행(federally chartered banks)에 가상자산 보관(수탁) 사업을 허용한다는 법령해석 의견서(interpretive letter)를 공개
 - 이어 지난 5월 주요 규제당국(OCC, FDIC, FRB)은 가상자산 사업 규제 정립과 주체별 업무 분담 등의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체 'Sprints team'을 결성하였고 최근 은행권 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허용범위 설정 등을 포함한 규제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
 - 또한 지난 10월 美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²⁾를 승인한 데 이어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 되고 있음을 시사
- (스위스) FINMA는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분류하고 취급 형태에 따라 관련법을 적용하는 한편, CISA 라이선스 취득 시 은행으로서 가상자산 수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18.2월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분류(자산형, 기능형, 지불형)하고 취급 형태에 따라 관련법을 적용
 -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토큰의 구조, 성격, 기능에 따라 증권거래법(SESTA), 금융 시장기반법(FMIA), 은행법, 금융서비스법(FinSA), 집합투자법(CISA) 등에 적용되며 은행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CISA 라이선스를 통해 가상자산 수탁업 진출이 가능
-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Crypto custody business'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이를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포함시켜 모든 가상자산 수탁업체에 라이선스 등록을 의무화
 - '20.1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화 규정이 포함된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이 EU 28개국 전역에 적용됨에 따라 BaFin은 가상자산 수탁업 인가 내용을 은행법(KWG)에 포함
 - 단 기존 은행들은 자체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아도 Fireblocks 등 커스터디 솔루션 제공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von der Heydt 참고)
 - 은행법 개정 이후 40여개 독일 은행을 비롯해 여러 핀테크 기업이 가상자산 수탁업 인가를 신청한 한편 Coinbase, 솔루션 제공업체 Tangany 등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황

2) 2021년 10월 19일 NASDAQ에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ETF,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aka. BITO)가 상장

II. 해외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진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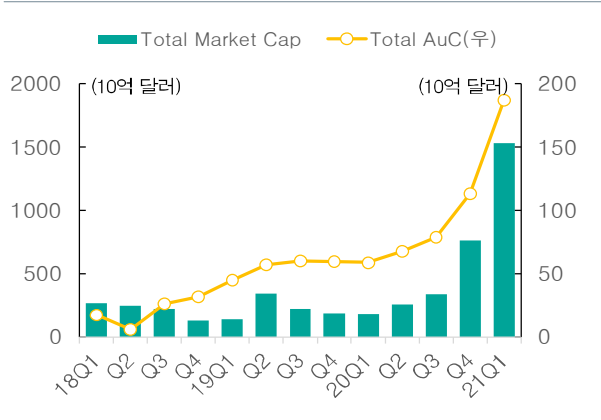
- 은행권 내 비이자 부문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은행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에 이어 기관투자자의 꾸준한 유입으로 성장세가 지속되자 기존 수탁³⁾ 업무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려는 은행들이 증가하는 추세
 - 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 등 은행 수익성·성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인해 비이자 부문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한편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은행들은 대체적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구매대행 및 개인 키(private key) 보관 등 기본적인 수탁 서비스 제공에 초점
- 실제 해외 은행들의 경우 각국의 규제 및 시장 환경에 따라 커스터디 솔루션 내재화 또는 블록체인 전문업체 투자(지분투자, 인수 등)를 통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
 - Vast Bank는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Coinbase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지난 '21.9월 미국 은행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출시
 - 美 BNY 멜론이 2월부터 가상자산 전문업체 Fireblocks와 협업해 커스터디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US Bank는 디지털자산운용사 NYDIG를 협력사이자 sub-custodian으로 내세워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 출범
 - 스위스에서는 지난 '19.1월 Vontobel 은행이 최초로 보관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SEBA 은행이 '21.9월 CISA 인가를 받아 투자신탁 대상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

그림6 |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개념



자료 : 한화자산운용 재인용

그림7 | 가상자산 시장규모 및 AuC 추이



자료 : Blockdata

3) 커스터디(수탁, custody)는 금융사들이 고객의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위탁 금융자산에 대한 수취결제·권리보전·의결권 행사 등 상임대리인 업무를 포함

- 앞서 언급한 해외은행 외 주요 글로벌 은행들도 가상자산 관련 신사업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전문기업 및 커스터디 솔루션 제공업체 대상으로 투자를 본격화
 - 2021년 글로벌 상위 100대(AuM 기준) 은행 중 55곳에서 블록체인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투자 또는 자회사를 통한 인수 방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
 - 그 중 BNP 파리바(6위), JP모건(7위), 골드만삭스(8위), Citi(9위), Barclays(19위) 등이 가장 활발하게 투자 라운드에 참여
 - 이들 은행은 블록체인 기술력 확보 및 협력 차원에서 지급결제, DLT(분산원장기술) 부문 스타트업, 특히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문업체 등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
 - 투자 규모 기준 상위 블록체인 관련 기업 7개(분야, 투자액): Circle(지급결제, \$711m), Dianrong(무역금융, \$649m), Ripple(DLT, \$393m), NYDIG(커스터디, \$355m), Paxos(커스터디, \$340m), Digital Asset(DLT, \$262m), Fireblocks(커스터디, \$179m)
 - '21.8월 기준 이들이 투자한 블록체인 관련 회사는 총 71개로 커스터디 전문업체에 가장 많은 투자액이 집중되었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및 DLT 관련 스타트업의 투자 라운드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

표1 | 글로벌 은행들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투자 현황

구분	본사	AuM (\$b)	투자 참여횟수	투자규모 (\$m)	투자대상 업체
Standard Chartered	런던, 영국	789	6	380	Ripple , Cobalt, Dianrong, Metaco, Linklogis
BNY Mellon	뉴욕, 미국	470	5	321	Fireblocks , HQLAx, R3, Finality Int'l
Citibank	뉴욕, 미국	2,260	14	279	BUCK, Chain, SETL, Axoni, Cobalt, Digital Asset , HQLAx, R3, Komgo, Symbiont
UBS	취리히, 스위스	1,126	5	266	Axoni, R3, Finality International, ConsenSys
BNP Paribas	파리, 프랑스	3,081	9	236	Digital Asset , HQLAx, METRON, R3, TradeIX, Komgo, Token
Morgan Stanley	뉴욕, 미국	1,116	3	234	NYDIG , R3, Securitize
JP Morgan Chase	뉴욕, 미국	3,386	8	206	Axoni, ConsenSys, Digital Asset , R3, HQLAx
Goldman Sachs	뉴욕, 미국	1,163	8	204	Axoni, HQLAx, R3, Coin Metrics , Circle, Blcokdaemon, Veem
Barclays	런던, 영국	1,842	22	196	RealBlocks, Safello, Chainalysis, R3, CrowdZ, Post-Quantum , Finality Int'l, The Sun Exchange
MUFG	도쿄, 일본	3,408	6	185	bitFlyer, Coinbase , R3, Komgo, Finality Int'l
ING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1,147	6	170	HQLAx, R3, Komgo, Finality Int'l, Vakt
BBVA	빌바오, 스페인	796	5	167	Covault , Cambridge Blockchain , Everledger, R3, Solarisbank
Nomura	도쿄, 일본	432	5	146	Quantstamp, Komainu , R3, Securitize

주1) : 2021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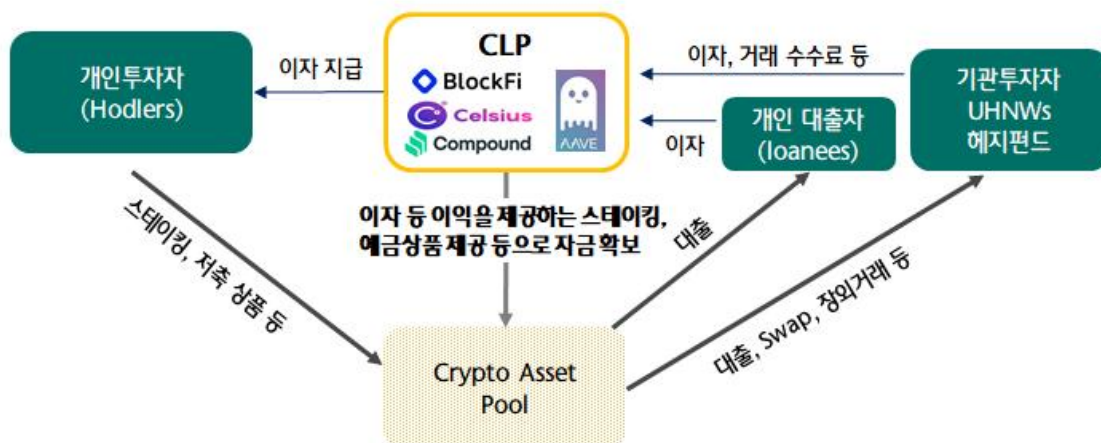
주2) : 투자 규모는 해당 은행이 참여한 투자 라운드의 모금액을 합산한 기준이며, Bold된 투자기업은 가상자산 관련 업체

자료 : Blockdata

III. 향후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방향

-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한 은행들은 커스터디 서비스로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스테이킹, 가상자산 대출, 기관 대상 운용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가능성
 -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려는 은행들은 해당 국가의 규제 및 시장 환경에 따라 진출 방식 (투자, 제휴 등)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초기 사업은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유력
 - 다만,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에는 이미 BitGo 등의 전문업체가 존재하는데다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스테이킹⁴⁾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안전성을 강점으로 둔 은행일지라도 커스터디 서비스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엔 무리
 - 게다가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된다 하더라도 커스터디 시장만 놓고 보았을 때 한정된 수요(기관투자자)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사업 성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이에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려는 은행들은 커스터디 서비스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스테이킹, 가상자산 담보대출, 운용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가능성
 - [참고1] Anchorage는 커스터디의 보안성을 강조하며 기업고객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 대상으로 가상자산 OTC 거래,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 추가 수입원을 확보
 - [참고2] BlockFi는 확장형 CLP(crypto lending platform) 모델을 도입해 스테이킹, 담보대출, 트레이딩을 비롯한 저축상품, 비트코인 리워드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 중

그림8 | CLP(crypto lending platform) 비즈니스 모델



자료 : BlockFi, The Block Research

4) 스테이킹(staking)은 사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지분 형태로 고정하는 행위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이익을 얻는 예적금과 유사한 개념

[참고 ①] Anchorage

-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수탁은행 Anchorage는 수탁업의 핵심인 보안성·사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커스터디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최근에는 VISA의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에 참여해 은행을 대상으로 Crypto API를 시범 운영
- Anchorage Digital은 기관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스테이킹, OTC 거래, 담보대출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
 - 가상자산 커스터디: 하드웨어 안전 모듈(HSM)⁵⁾ 기반 스토리지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극대화하였고, 현재 비트코인 포함 총 74개의 가상자산을 다양하게 취급
 - 트레이딩: 대량의 가상자산을 매매를 원하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장외거래 서비스 제공
 - 스테이킹: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을 Anchorage에 특정 기간 맡기면 그 대가로 보상(이자 형태)을 받는 저축과 유사한 개념의 서비스
 - 가상자산 담보대출: Anchorage에 보관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미화 대출 및 LOC를 제공
- Anchorage는 crypto API를 통해 은행을 포함 여러 기관투자자와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
 - Anchorage 시리즈B 투자에 참여했던 VISA와 美 네오뱅크 First Boulevard와 제휴해 지난 2월 crypto API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 및 트레이딩 서비스를 시범(pilot) 운영

그림9 | 가상자산 스토리지 유형

Hot Wallet	Cold Storage	Multi-Sign	Smart Contract
온라인 커스터디언십 (custodianship)	오프라인 저장 (no internet connectivity)	온라인 커스터디언십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이더리움 등)
디지털 개인키 (private key)를 통해 가상자산에 접근가능	개인키를 통해 오프라인 디지털 월렛에 접근가능	다중인증 절차를 통해 거래가능	온라인 커스터디언십
접근성이 높아 잦은 거래 시 이용	자체 설정한 방식으로 접근	탈중앙 지갑으로 다수 이용자 접근 가능	자체 코드 및 마스터계정 개인키로 통제
가상자산 저장소 중 보안이 가장 취약	오프라인 저장으로 안정성은 뛰어나나 휴먼리스크 다소 존재	다중인증 절차를 통해 보안성 우수	일반 저장소와 다르게 맞춤형 (customizable) 지갑 설정이 가능

자료 : Anchorage, Deloitte

그림10 | VISA의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 전략 참여



가상자산 월렛, 거래소 등과 협력해 향후 전세계 7천만 비자 가맹점에서 고객이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고 법정화폐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지원 할 계획

- 이미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플랫폼 50개와 제휴를 체결했으며 비자카드를 발급하고 이용 시 비트코인 리워드 등의 프로모션 제공 중

은행 등 기관투자자가 Crypto API를 통해 가상자산을 취급(거래, 매매 등)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

자료 : VISA, Anchorage, 언론보도 종합

5) HSM은 암호키 및 중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보호하기 위해 연산기능을 내장한 침해방지(temper-resistant) 하드웨어 솔루션

[참고 ②] BlockFi

■ BlockFi의 대표 상품인 BIA를 앞세워 리테일 손님을 유치하고 실시간 트레이딩,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로 락인(lock-in) 효과 시도

- BlockFi는 가상자산 예금상품, 실시간 트레이딩, 담보대출 서비스 및 비트코인 리워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

- 가상자산 저축계좌(BIA): BlockFi Interest Account에 가상자산을 예치 시 '21.11월 기준 비트코인 등은 최대 5%, 스테이블코인은 9%대 연이자(APY)를 지급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간 교차 매매 등에 사용되는 '기축 코인'으로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

- 실시간 트레이딩: 총 9가지 가상자산(BTC, ETH, LTC, PAXG, UNI, DAI, LINK, BAT, USDC)에 한해서 개인, 기관 모두 인앱(in-app)으로 24시간 매매거래가 가능

- 가상자산 담보대출: 대출 신청금액은 최소 1만 달러부터이며 예치한 가상자산의 최대 LTV 50%, 연이자 최저 4.5%의 1년 만기 대출상품을 제공

- 비트코인 리워드 VISA 신용카드: 연 이용금액 5만 달러까지는 1.5%, 그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 2%의 비트코인 캐시백을 지급하며 BlockFi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금액의 0.25%(최대 500 달러)를 추가로 지급

- OTC 거래: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OTC 거래 데스크를 런칭해 기관투자자 및 UHNWs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및 마진거래 등을 제공

표2 | BlockFi Interest Account 이자율 (일부 발췌)

구분	제한 개수	이자율(APY)
비트코인 (BTC)	0 - 0.10 (Tier 1)	4.5%
	0.10 - 0.35 (Tier 2)	1.0%
	> 0.35 (Tier 3)	0.1%
이더리움 (ETH)	0 - 1.5 (Tier 1)	5%
	1.5 - 50 (Tier 2)	1.5%
	> 50 (Tier 3)	0.25%
달러코인 (USDC)	0 - 40,000 (Tier 1)	9%
	>40,000 (Tier 2)	8%
다이 (DAI)	0 - 40,000 (Tier 1)	9%
	> 40,000 (Tier 2)	8%

주 : 예치 규모(Tier)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며 '21.11월 기준
비트코인 포함 13개 종류의 가상자산을 취급
자료 : Block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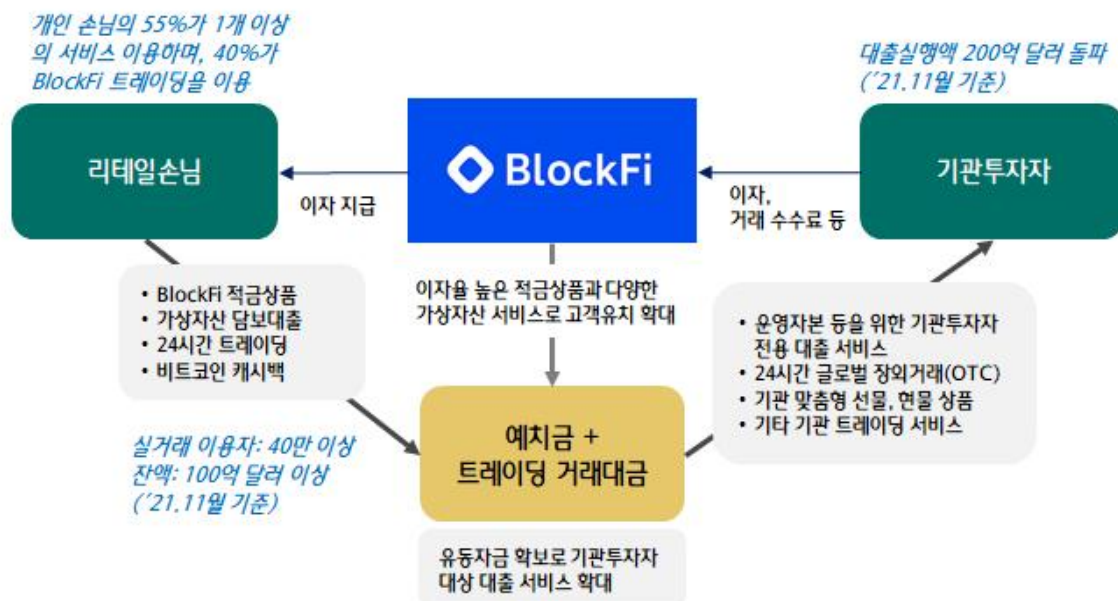
그림11 | DeFi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borrow rate 비교

Platform	USDC	DAI	USDT
USD Price	\$1.00	\$1.01	\$1.00
24h change	+0.4%	+0.7%	< +0.1%
Aave	7.95%	98.36%	5.92%
Aave, stable rate	9.46%	99.86%	7.71%
Notional Finance	11.06%	10.90%	-
YIELD Yield	-	6.41%	-
DDEX	5.00%	5.00%	5.10%
InstaDApp	3.87%	4.01%	5.88%
Nexo	11.90%	11.90%	11.90%
Inlock	15.20%	-	-
Vauld	13.00%	13.00%	13.00%

주 : borrow rate은 11월 30일 기준
자료 : LoanScan

- 특히, DeFi 플랫폼 시장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높은 이자의 예금상품인 BIA (BlockFi Interest Account)를 제공해 단기간 리테일 손님을 빠르게 유치
- 또한 BIA 상품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기관투자자에 대출을 제공해 예대마진을 확보하고 트레이딩, OTC 서비스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수익을 얻음으로써 CLP(crypto lending platform) 비즈니스 모델의 선순환을 강화
 - '21.11월 BIA 이용자는 전년말 대비 약 2배 늘어난 45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55%가 BIA 외 트레이딩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비트코인 현물 매입, 선물·마진거래 등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OTC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기관투자자, UHNWs 손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전년말 대비 약 200개 신규 고객사가 유입돼 현재 350+ 기업고객을 확보)
 - 올해 상반기 기준 BIA를 통해 확보한 10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중 46%는 대출, 38%는 제3자 커스터디언, 6%는 은행 및 중개인, 나머지 10%는 지급준비금 형태로 보유
 - 대출의 경우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최대 LTV 50%를 적용한 담보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누적대출액 200억 달러 중 신용손실로 인식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례 無

그림12 | BlockFi 사업구조 : 확장형 CLP 모델



자료 : BlockFi, The Block Research

[참고문헌]

금융정보분석원(2021.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김상진(2021.3), 가상자산 시장 변화와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영우(2021.6), ‘비트코인의 아버지’ 사토시에게 묻는다. 당신이 원하는건 돈인가 혁신인가,
매일경제
윤주호(2021.3), 금융권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현황과 전망, 법무법인 태평양
조재범(2019.12), 스위스 크립토 은행의 도입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화자산운용(2021.5), Digital Asset Research Series 5 비트코인 가치 평가
한아름(2021.7),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ARK Investment Management(2021.1), Big Ideas 2021
Blockdata(2021.8), Blockchain Companies Invested in by Top 100 Banks
Blockdata(2021.8), Digital Asset Custody in 2021
Blockdata(2021.8), Top Banks Investing in Crypto & Blockchain Companies
Buy Bitcoin Worldwide(2021.11), Bitcoin Treasuries
Crypto.com(2021.7), Measuring Global Crypto Users
Fidelity Digital Assets(2021.9), The Institutional Investor Digital Assets Study
FRB, FDIC, OCC(2021.11), Joint Statement on Crypto-Asset Policy Sprint Initiatives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2021.1), Interpretive Letter 1174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2020.7), Interpretive Letter 1170
Ryan Todd(2021.1), BlockFi Company Intelligence: Building a Neobank for Crypto

하나 CEO 경영이슈

Hana CEO Issues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02-2002-2605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